

'買', '賣'류 한자에 관한 소고

蔡春玉*

目 录

1. 머리말
2. '買'와 '賣'의 속성
 - 1) '買'의 속성
 - 2) '賣'의 속성
3. '賣'와 '買'의 비교 분석
 - 1) '賣', '買'의 '屮', '四' 비교
 - 2) '賣'와 '買'의 기능 비교
4. '賣'과 '價', '鬻', '粥'의 비교 분석
 - 1) '賣'과 '價'의 비교 분석
 - 2) '賣'과 '鬻', '粥'의 비교 분석
5. 맺음말

1. 머리말

중국어에는 '買'(사다)와 '賣'(팔다)의 뜻을 나타내는 한자가 많은데, '市, 買, 賣, 鬻, 粥, 街, 沽, 沽, 賈, 貿, 售, 购' 등을 들 수 있다.

'市'는 『설문해자』(說文解字)에서 장사하는 곳을 이른다(買賣所之也.). 후에 '사다'(市賤鬻貴), '팔다'(故市木之价, 不加贵于山.)의 뜻을 나타내게 되었

* 國民大學校 中國學部 副教授

다. '賈'는 『설문해자』에서 '賈, 市也.'라고 하였다. 段玉裁注에서는 "市, 買賣之所也. 因之, 凡買凡賣皆曰市. 賈者, 凡買賣之稱也."라고 하였다. 이는 '市'는 '매매(買賣)하는 곳이고, '買', '賣'는 모두 '市', '賈'의 뜻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沽', '沽', '賈'는 통가자(通假字)이고 '古音'이 동일하며 '팔다', '사다' 두 가지 의미가 있다. 또한 '沽賣', '鬻鬻'는 동의연용(同義連用)이고 '沽', '賣', '鬻', '鬻' 등은 모두 '팔다'의 뜻을 나타낸다. 이처럼 '買', '賣'류 한자들은 대부분 서로의 조합과 해석이 가능하고 '사다'와 '팔다' 두 가지 의미를 모두 나타낼 수 있어서 구체적인 문맥이 아니면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기존의 논의를 보면 黃凡(2010)은 「說"賣"和"價"」에서 '賣'가 '價'를 중심으로 '賣'은 경전에서 많이 나타나지 않고, '價'는 경전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점진적으로 '買', '賣'에 의해 대체되었다고 하였다. 武彬(1999)은 문언문에서 '鬻, 沽, 賈, 市, 鬻, 售, 貨, 買, 賣' 등 한자와 관련된 예문을 중심으로 다루었다. 葉桂柳(2011)은 현대 입말체에서 많이 사용되는 '買', '市', '購'의 통시적 변화과정을 『詩經』, 『書經』, 『三禮』, 『易經』, 『論語』, 『孟子』, 『孝經』, 『爾雅』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購'는 글말체와 이음절에서 사용되고 '市'의 의미는 소실되었다고 하면서 '市', '購'와 '買'는 돈으로 물건을 교환할 때에 의미 분포에서 차이점을 보여준다고 하였다. 위에서 보다시피 원형인 '買'와 의미 또는 자형에서 관련성을 보이는 '賣', '賣', '價', '鬻', '粥'을 비교하는 연구는 많지 않다.

본고에서는 학생들이 구분하기 어려워하는 '買', '賣' 두 한자를 중심으로 '예변(隸變) 전후의 자형 특징, 기능 속성을 살펴보고, 의미가 동일하거나 자형이 비슷한 '賣', '價', '鬻', '粥' 등 한자와의 관련성을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買', '賣'류 한자들은 자형이 통합되었거나 같은 자형이 상반되는 의미를 나타낼 수 있어서 구체적인 문맥과 시대에 따른 자형의 변화에 근거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2. '買'와 '賣'의 속성

1) '買'의 속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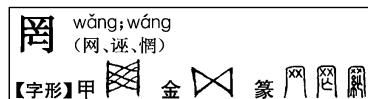
'買'는 회의자이고 '网'(그물 망)과 '貝'(조개 패)로 구성되었다.

(1) '网'의 구형 속성

<표1> 『漢字源流字典』'网'(270頁)



<표2> 『漢字源流字典』'罔'(638頁)¹⁾



<표1>의 '网'은 갑골문에서 그물 모양으로서 상형자이다. 금문(金文)은 간화(簡化)되었고, 전문(篆文)은 '整齐化(가지런하게 변화)', 예변 후에 해서체인 '网'을 쓴다. '网'은 '포희씨'(庖犧氏)가 끈을 묶어 사냥하고 고기를 잡던 것이라고 한다. '冂'(덮을 떡)으로 구성되었고, 안쪽은 그물의 교차한 무늬를 상형한 것이다. <표2>의 '罔'은 상형 겸 회의자이고 금문에서는 간화되었다. [篆文1]은 '整齐化', [篆文2]는 성부 '亡'을 부가하고²⁾, [篆文3]은 의부 '糸'를 부가하였다.

'网'의 후기자는 '網'으로서 '糸'를 따르고 '罔'성이다. [篆文2]를 보면 『甲金篆隸大字典』(525頁)에서 '罔'은 본래 '罔'인데 '网'을 따르고 '亡'(망)성이라고 하였다.³⁾ 『설문해자』에 따르면 '網'과 '罔'은 모두 '网'의 이체자이다. 춘추, 진, 한의 문자 자료와 고서 중에는 모두 '罔'으로 그물을 나타낸 예가 있다.

1) 穀衍奎, 『漢字源流字典』, 語文出版社, 2008, 270, 638쪽.

2) '亡'의 본의는 '칼끝(鋒芒)'이고, '도망가다'(逃亡)의 의미로 가차되었다. 傅東華著, 『字源』, 藝文印書館股份有限公司, 1985, 1114쪽.

3) 徐無聞, 『甲金篆隸大字典』, 四川辭書出版社, 2008, 525쪽.

- (1) 四面張罔，焚林而獵。 『春秋繁露·五行哂逆』
 (2) 張羅罔罟罟，捕熊羅禽獸。 『資治通鑒·漢成帝元延三年』
 (胡三省注: 罔，與網同) 『漢語大字典』(115頁)
 (3) 罔，無也。 『爾雅·釋言』
 (4) 雖爾身在外，乃心罔不在王室。 『漢書·揚雄傳下』
 『漢語大字典』(115頁)

'罔'자는 그물 외에 부정을 나타내는 용법이 있으므로 '糸'를 부가하여 오로지 그물의 뜻만 나타내는 글자로 분화시켰다(唐蘭, 2017:159). 언어에서 하나의 말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문자에서는 자형으로 그것을 구분한다. 이렇게 내포된 뜻이 많으면 형부를 더하여 구별하는데 '자유'(孳乳)라고 한다.⁴⁾

<표3> 『說文解字今釋』'罔'(1037頁)⁵⁾

罔 罔 庖犧所結繩，以漁。从宀，下象罔交文。凡罔之屬皆从罔。罔，罔或从亡^①。罔，罔或从糸^②。罔，古文罔。罔，籀文罔。文部切(wǎng)。

<표4> 『漢語大字典』'罔'(101頁)

罔 同“網”。《玉篇·網部》：“罔，今作網。”

<표3>의 [篆文②] '罔', <표4>의 '罔'은 의부인 '糸'가 그물 안쪽에 위치하였다.⁶⁾ 『玉篇』에서 "지금은 '網'으로 쓰인다."고 하였는데 이는 좌형우성(左形

4) 唐蘭 著, 오만중·김미성·박정희 옮김, 『중국문자학』, 전남대학교출판부, 2017, 159쪽.

5) 許慎著, 湯可敬 撰, 『說文解字今釋』, 嶽麓書社, 1997, 1037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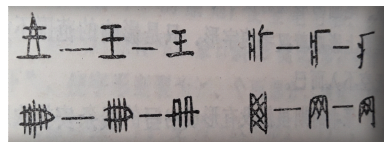
6) 裘錫圭 著, 李鴻鎮 옮김, 『文字學概要(중국문자학의 이해)』, 신아사, 2014, 101쪽.

허신은 '설문서'에서 책을 엮은 차례는 "이제 전문을 베풀고 고문 주문으로 합하였다(今敝篆文, 습이古, 籀)"라고 하였다. 설문의 자형은 주로 소전으로 하였는데, 만약 고문과 주문의 서사 방법이 소전과 다르다면 주문을 아울러 채용하였다. 소전이 고문과 차이가 있으면 단지 고문만을 수록하고, 고문과 차이 없으면 단지 주문만을 수록하였다. 전통적인 설명에 따르면 주문은 마땅히 서주 말기의 문자이다. 대전과 소전 명칭은 마땅히 漢代부터 비로소 사용했을 것이다. 秦代에는 단지 전(篆)이라는 자체의 명칭만 있었을 것이다. 漢代에 이르러 예서가 소전을 대신하여 주요한 글자체가 되자, 한자 발전사

右聲)이다. 형성자의 위치는 바꿀 수 있는데 예를 들면 '權'은 좌형우성이고, '龔'은 상성하형이다.⁷⁾ 중국 문자의 경우 대부분 습관에 의한 것이고 이론적으로 말하자면 위치가 다르더라도 여전히 같은 글자이다.⁸⁾

王凤阳(1989:764)에 따르면 한자 자형에 영향 주는 요소로 '框架的行数', '书写生理', '自然演进', '区别要求', '简易要求', '字之间的吸引与排斥' 등이 있다.⁹⁾ '构字用线'에는 '贯通/串連'과 '並連'이 있는데, '贯通/串連'은 두 선이 서법에서 방향이 일치하여 같은 선으로 관통되는 변화이다. '並連'은 가까운, 같은 방향의 선이 한자를 만드는 데 균형(构字匀称)을 목적으로 하나로 통합되는 변화이다.¹⁰⁾

<표5> 종적통합·'豎向並連'의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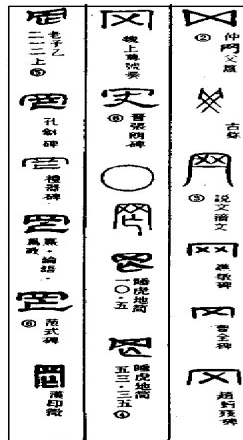
갑골문의 '𦉳'에서 시작하여 금문의 '𦉴', 주문(籀文)의 '𦉵', 지금의 '网'으로의 변화는 '构字用线'의 '豎向並連'이다.

현재 우리가 '網'을 '网'으로 간화한 것은 복고(復古)라고 할 수 있다. '网'은 소리를 나타내는 편방으로 사용될 때는 '岡'(강)에서 '山'을 제외한 편방인 '𦉶, 𦉷'을 쓴다. 그리고 뜻을 나타내는 편방으로 쓸 때는 '罟', '罟' 등에서 보다시피 '𦉸'으로 간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¹¹⁾

는 고문자 단계를 벗어나 예서, 해서 단계로 들어가게 되었다. 汉代 이후 소전은 주로 인장에 새기고 금석에 새기는 데 사용되는 글자체가 되었다.
 7) 徐中舒主編, 『漢語大字典』, 四川辭書出版社, 1986-1990年出版, 101쪽.
 8) 唐蘭 著, 오만중·김미성·박정희 옮김(2017:164) 참조함.
 9) 王鳳陽, 『漢字學』, 吉林大學出版社, 1989, 764쪽.
 10) 唐蘭(2017:204)에서는 간략화 되고 변화(繁化)된 많은 글자들은 동화 작용을 받은 관계라 하고 동화한 글자는 종종 유추작용으로 만들어진다고 하였다.
 11) "网, 庖牺所结绳以渔。『说文』, 网, 谓之罟。『广雅』, 捕鸟兽的叫“网”, 捕鱼的叫“罟”。 소전은 상형자의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자형이 원숙함과 매끄러움이 있고 체계적이다. 원래 전서에서 한자와 편방은 서법이 같았지만 예서의 미관과 간편함을 위해 '水→氵', '网→𦉸', '辵→辶', '心→忄', '手→扌', '阜→阝(左耳)', '邑→阝(右耳)'으로 변화였다.

唐蘭(2017:157-160)은 상형문자에서 형성문자로 변화하는 과정을 자유(孳乳), 전주(轉注), 종익(種益) 등으로 나눈다. 종익은 『설문해자』에서 "種, 增益也."라고 하였는데, 불필요한 중복과 증가를 말한다.¹²⁾

<표6> 『甲金篆隸大字典』



갑골문의 '𦉳', 금문에서 '𦉳'이 '𦉳',籀文 '𦉳'으로 '並連'이 되면서 자형이 간소화되어, 부호 '丨'를 부가하거나(<표7>의 ⑤), 성부인 '宀', '𠂇', '宀'을 더하여 표현한다(⑥~⑩).

이처럼 진한(秦漢)이후의 문자에 더 번잡한 것이 있는데 모두 종익자(種益字)이다(唐蘭, 2017:204). 상형문자에 성부를 더 하는 것은 후세에 문자가 간단하게 변하여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할 것을 우려하는 경우인데, 이런 종류의 예가 많은 것은 아니다.

<표7> '网'의 자형 변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𦉳	𦉳	𦉳	𦉳	𦉳	𦉳	𦉳	𦉳	𦉳	𦉳

<표7>에서 ⑥의 경우는 그물을 나타내는 상형부호인 '𦉳'이 없어지고 '丨'(경)만으로 글자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⑥은 '说文古文'의 자형인데 육국(六國)의 고문은 동쪽의 고문자(古文字)를 답습한 것으로 소전(小篆)보다 훨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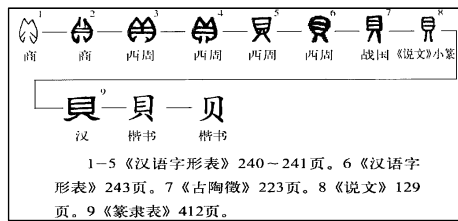
12) 唐蘭(2017:162)에서는 고금문자의 구성 과정을 분화(分化), 인신(引伸), 가차(假借), 자유(孳乳), 전주(轉注), 종익(種益)으로 나누고 '六技'라고 부른다. 분화, 인신, 가차는 같은 종류의 문자 구성 방법이며, 상형문자에서 형성문자로 변환 후에 자유, 전주, 종익 세 종류가 더해졌다.

간단하다고 한다.¹³⁾

(2) '貝'의 구형 속성

'貝'(조개 패)는 바다의 껍질 있는 해충이다.¹⁴⁾

<표8> '貝'의 자형 변화 『字源』(564頁)



'貝'자는 상형자이다. 貝¹는 입을 벌리고 있는 바다 조개의 모습을 본뜨고 있다. 소전에서 아래쪽 두 획이 확실해지며 '貝'자를 이루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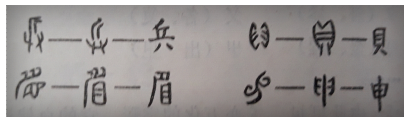
옛날에 '貝'는 화폐로 썼고, '龜'(구:거북이 껍데기)를 보물로 여겼다. 주나라에는 '泉'(천)이 있었고('貝'도 겸했음), 진에 이르러 '貝'를 폐지하고 '錢'(전)으로 통행했다.¹⁵⁾ 양동숙(2006:232)에 따르면 고대에 조개껍데기를 화폐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貝'는 금전이나 재물을 상징하며 '財', '貴', '寶'처럼 '貝'를 형부로 하는 한자는 모두 재물, 존귀함과 관계가 있다. 여인들은 다산의 상징으로 여겨 '貝'를 소중히 여겼는데, 상나라 때 무정비(武丁妃)의 '妇好墓'에서 조개 7천여 점이 발견된 것으로도 짐작할 수 있다. 위에서 보다시피 '貝'는 일종의 해패를 본뜬 것이고 옛사람들은 그것을 장식과 화폐로 삼았고 재물과 관계가 있는 한자는 대부분 '貝'를 따랐다.

13) 唐蘭(2017:204)에 따르면 예서(隸書)는 전서(篆書)보다 간단하고 쉽다. 왜냐하면 일부분이 육국문자를 답습하였기 때문이다. 초서(草書)는 예서보다 간단하고 쉬우며, 더욱 발전하여 진서(眞書)와 행서(行書)가 되었고, 진서는 또 발전하여 간체자(簡體字)가 되었다.

14) 육지에 있는 것을 '蜃'(표:개 달리는 모양)라고 하고 물에 있는 것을 '蚌'(함:작은 소라)이라고 한다.

15) '布'는 '泉'이다. 저장된 것을 '泉', 유통되는 것을 '布'라고 한다.

<표9> 횡적통합-‘橫向並連’의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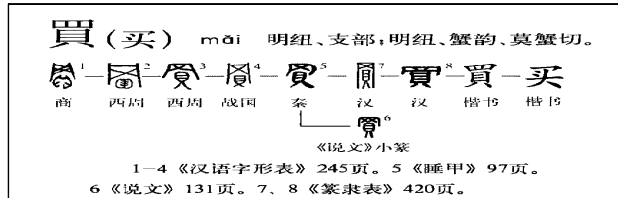


王凤阳(1989:765)에 따르면 갑골문의 '𠄎'가 소전의 '貝'로 변화하는 과정은 '橫向并连'과 관련이 있다.

裘锡圭(2010:99)는 구부러지고 꺾인 상형적인 선을 잡아당겨 평평하게 하고, 서로 이어지지 않은 선을 연결하여 하나의 획으로 만드는 현상을 '평직화'(平直化)라고 하였다. 이런 변화를 겪고 나면 문자의 상형 정도는 현저하게 낮아져서 쓰기가 편하게 되었다.

(3) '買'의 구형, 기능 속성

<표10> '買' 자형의 변화 『字源』(577頁)¹⁶⁾



'買'는 회의자이다. 예변 후에 해서(楷書)로 '買', 간화자에서는 초서체로 줄여 쓴 '买'를 사용한다.¹⁷⁾

- (5) a 買, 像以網取貝之形。 『殷契佚考慮考釋』(商承祚)
- b 買, 市也, 從網貝。 『說文解字注』, 12卷, 六篇注下
- c 買鬻, 易也。 『墨子·經說上』(戰國)

16) 傅東華(1985:577) 참조함.

17) 본고의 대부분은 번체자이고 일부 예문과 해석은 변화된 자형의 양상 또는 이해의 편의를 위해 간체자를 사용하였다.

(5a)에 따르면 갑골문에서 '𩺰'는 그물을 드리워 바다 조개를 잡는 모습을 본뜨고 있다. (5b)의 『설문』에서 '買'는 사는 것이고, '망'(網)과 '궤'(貝)를 따른다. 『맹자』에서는 '가과른 언덕에 올라서 시장의 이익을 그물질한다.'고 하였다. (5c)에서 '買鬻'은 사들이고 팔다(买进卖出)의 뜻을 나타낸다.

그물에 조개를 담고 가서 물건을 사는 데서 물건을 사는 의미를 나타내게 되었다고 하였다. 고대에 바다 조개는 사람마다 필요로 하고 또한 그것으로 물품을 매매(買賣)할 수 있었으므로 대부분 상업적인 교역에 주로 사용되었다. '買'를 통하여 바다 조개의 상업적인 가치를 알게 되었고, '買'를 '돈, 재산, 이익을 끌어 모이다'(網羅钱财、获利之意)의 뜻으로 이해하였다.

'買'의 간체자 '𠄎'는 '大'자와 두 점으로 구성되었다. '大'자는 두 팔을 벌린 사람을 본뜬 것이고 두 점은 지시 부호이다. 두 점이 인형(人形)의 머리 부위에 부가하여 머리의 뜻을 나타내며 지시자이다.¹⁸⁾

'買'는 현재 '사다'(购进, 以钱换物), '세내다'(雇, 赁), '자초하다'(招惹; 引起), '이익을 얻다'(博取; 追逐), '성씨'(姓) 등의 뜻으로 쓰인다. 『字源』에 따르면 '買'는 원래 '買'와 '賣' 두 가지 뜻을 모두 나타낼 수 있었다. 후에 교역에서의 사들이는 뜻만 나타내게 되었는데 '賣'에서 다루기로 한다.¹⁹⁾

2) '賣'의 속성

(1) '賣'의 구형 속성

'賣'는 회의 겸 형성자이고, '出'과 '買'로 구성되어 원래 '賣'이었다.

18) 竇文字·竇勇, 『漢字字源: 當代新說文解字』, 吉林文史出版社, 2005, 470-476쪽.

19) 傅東華(1985:577) 참조함.

<표11> '賣'의 자형 『漢字字源』(字源解說2:476頁)



'出'(날 출)자는 갑골문에서 '出'으로 나타나는데 '止'(지)와 '凵'(감)의 합자이다.

<표12> '止'의 자형 『漢字源流字典』(78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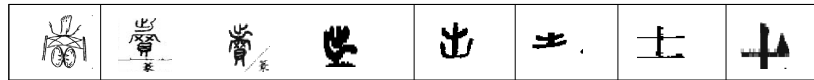


<표13> '出'의 자형 『漢字源流字典』(203頁)



표에서 보면 '出'의 본자인 '止'는 갑골문에서 왼발의 모습을 본뜨고 있고 본의는 사람의 발을 뜻한다. '凵'은 고대인이 사는 혈거(穴居)의 입구를 나타낸다. 발이 반 지하식의 토굴을 걸어 나가는 모습을 본뜨고 있고 본의는 '안에서 밖으로 나가다'(自內到外)이다. '出'의 자형 변화 과정은 다음과 같다.

<표14> '賣'자에서 '出'의 자형 변화



원래는 '出'이 의미부이고 '買'가 소리부로서 사들인(買)것을 내다(出) 파는 것을 말했는데, '出'이 '士'(선비 사)로 와변하여 지금처럼 되었다. 이로부터 '팔아먹다, 자신을 드러내다, 과시하다' 의미로 인신되었고, 간화자에서는 초서체로 줄여 '賣'로 쓴다.

(2) '賣'의 기능 속성

- (6) a 賣, 出物貨也。 『說文解字』
- b '賣', 今作賣。 『玉篇·出部』
- c 買之賤, 賣之貴, 朝買而夕賣。 『一切經音義』卷十六引『字統』
- d 賣, 本作買。 『正字通』

(6)에서 '買'는 상업교역을 뜻하는데 '買'(사다)와 '賣'(팔다) 의미를 모두 나타낸다. 후에 '買'는 교역중의 '買入'(사들이다) 행위만 나타내게 되었고, '買'에 편방 '出'을 부가한 '賣'는 '팔다'의 의미를 나타내게 되었다.

<표15> '賣'의 자형 변화 『字源』(550頁)

<p>賣¹ (賣) mài 明組、支韻; 明組、卦韻、莫解切。</p> <p>𠩺¹ 𠩺² 𠩺³ 賣³ 賣⁴ 賣⁵</p> <p>《說文》小篆 漢 漢 楷 行 楷</p> <p>1 《說文》127頁。2, 3 《篆隸表》403頁。</p>

'先秦古書'에서 '𠩺'(표15-1)를 볼 수 있다. 고고학 자료를 보면 '賣'가 가장 일찍 나타난 것은 '西漢早期寫本馬王堆漢墓帛書'('戰國縱橫家書')의 '𠩺'(표15-2)이다.

- (7) a 有買及買(賣)毆(也), 各嬰其賈(價); 小物不能各一錢者, 勿嬰。
(不滿一錢不要系自簽兒)
『秦律十八種·金布律』(睡虎地秦墓竹簡)
- b 盜盜人, 買(賣)所盜, 以買它物, 皆畀其主。
『法律答問(秦律)』(皆畀其主: 應歸還原主)
- (8) 賈貸賣買販肆便。 『急就篇, 卷二(漢)』
顏師古注: "出口賣, 入口買。" (販肆: 販運貨物, 開店買賣)

(7a)를 보면 진나라 때의 '睡虎地秦墓竹簡'에서 '買'는 여전히 '팔다'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7b)의 '秦律'를 보면 '물건을 훔친 사람은 장물을 팔아 다른 물건을 사도 모두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뜻인데 여기에서 '買'도 '팔다'의 뜻을 나타낸다. (8)은 한나라 『急就篇』의 예인데, '顏師古注'에서는 "出爲

賣, 入爲買."라고 하였다. 시장에서 돈을 빌려 장사를 하는 것도 좋고, 물건을 운반하여 이익을 얻는 것 모두 생활의 편의를 위한 것이라는 뜻을 나타낸다.²⁰⁾ 따라서 '買'와 '賣'의 분화는 진한(秦漢)시기였을 것으로 추정한다.

王凤阳(1989:838-843)에 따르면 파생분화 현상은 일반적으로 시초의 자형이 기록한 본자(初形所記的原詞)가 사용 빈도가 높고 공기 관계에 있는 다른 동족어의 사용 빈도가 낮은 경우에 나타난다. 파생분화는 '자유분화'(孳乳分化)와 '양기분화'(兩岐分化)로 나눈다. '孳乳分化'의 예로 '取'를 들 수 있는데, 인신의미인 '取妻'를 나타내기 위하여 '女'(增益女旁)를 부가하여 형성자 '娶'를 파생하였다. 전자는 후자의 '源'이고 후자는 전자를 기초로 파생된 것이다. '買'는 '증익의부'(增益意符)인 '出'을 부가하여 '賣'를 파생하였다.

3. '賣'와 '賣'의 비교 분석

『설문해자』에 따르면 '賣'(mài)는 【出】 부에 속하고, '물건을 팔다'의 뜻이며, '賣'(yù)은 【貝】 부에 속하고, '돌아다니며 팔다'의 뜻이다. 두 한자는 자형이 비슷하여 구분이 쉽지 않다.

<표16> '賣mài', '賣yù'의 해석 『漢語大字典』(3886頁)

<p>賣(賣) 說文·出部 賣(賣) 說文·貝部 賣(賣) 說文·貝部</p> <p>《說文》：“賣，出物貨也。从出，从買。”段玉裁注：“出買者，出而與人買之也。《韻會》作買聲，則以形聲包會意也。”邵瑛羣經正字：“今經典作賣，隸省。”</p>	<p>賣 說文·貝部</p> <p>《說文》：“賣，街也。从貝，畚聲。畚，古文賍。讀若育。”朱珔段借義證：“自隸變賣字作賣，與賣相混。” yù 《玉篇》余六切。屋部。</p>
---	---

1) '賣', '賣'의 '𠂔', '四'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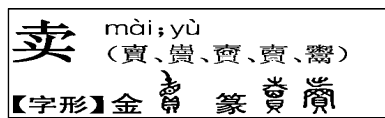
'賣mài'는 '出'과 '買'를 따른다. '팔다'의 뜻으로, 예번 후에 해서체 '賣'에서

20) 市場上的賈貸賣買也好，販運贏利也好，落腳點都在方便生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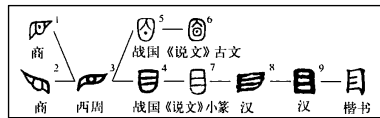
'賣'로 변한다. '賣yù'과 '賣mài' 두 한자는 의미가 동일하고 자형이 비슷한데 (义同形近) 이후에는 간화하여 '賣'로 쓰인다.

'賣yù'은 '貝'와 '叚'(성:察視)을 따른다. 물건을 사람들에게 전시해 보여주는 것인데, 예변 후에 해서체 '賣'에서 '賣'으로 변한다.

<표17> '賣', '賈' 『漢字源流字典』(581頁)



<표18> '目' 자형 변화 『字源』(273頁)



<표17-18>에서 보면 금문 '叚'에서 중간 부분(𠄎)은 눈 '目'(목)의 상형자인데, '目'과 '𠄎' 두 갈래로 자형이 변한다.²¹⁾ 이런 현상을 '별이'(別異)라고 하는데 문자가 증가하는 중요한 원인이다. 하나의 특수한 표기법(寫法)을 얻으면 종종 다른 문자로 변할 수 있다.²²⁾

<표18>의 서주 금문의 '𠄎'은 <표17>의 서주 금문 '叚'의 중간 부분 '𠄎'과 같은 것이다. '賣'과 이 한자의 중간 부분의 자형 변화를 보면 다음과 같다.

<표19> '賣'의 부분 자형 변화

𠄎 ¹	𠄎 ⁵	𠄎 ⁶	𠄎	𠄎
叚	賈	賣	賣	賣

21) '目'에서 기원한 '𠄎'과 달리 창문에서 기원한 '𠄎'(빛날 경)이 있는데 상형자이다. 𠄎에서 보다시피 고대 원시적인 창문을 본뜬 것이다. 예변 후에 해서체 '𠄎'으로 쓰고 속자는 '𠄎'이다. '𠄎'은 '賣'의 중간 부분인 四와 어원적으로 다른 한자인데 소전에서 '四'으로 변하여 비슷하게 보인다. '𠄎'(경)은 현재 '빛'(명사)을 나타내기도 하고, '밝다'(형용사) 또는 '우울한, 난감한'(형용사-인터넷 용어)의 뜻을 나타낸다. '目'은 현재 '눈'(명사) 또는 '보다, 주시하다, 여기다, 눈짓을 하다'(동사) 등을 나타낸다.

22) 唐蘭(2017:206) 참조함.

<표20> '賣'와 '賈' 중간 부분 자형 비교

[賣mài]						𠄎 (賣)
[賈yù]						

'賣mài'와 '賈yù'에서 중간 부분의 '𠄎'('網'의 변형)과 '四'('罔'의 변형)의 차이가 있다.

段玉裁, 朱珔에 따르면 '賈yù'자가 예변 후에 '賣mài'자와 혼동하기 쉽다고 하였다. <표20>에서 보면 의미가 같고 자형이 비슷한(同義形近) 두 한자는 결국 '賣'로 통합되었다.

2) '賣'와 '賈'의 기능 비교

'賈yù'은 두 가지 뜻이 있다.

(9) 팔다

- a 賣, 賈(賣)也。 『廣雅·釋詁三』 王念疏證: 賣音育。
- b 賈, 街也。从貝, 畷聲。 『說文解字』
- c 往來販賤賣貴, 家累千金。 『史記·呂不韋列傳』

(10) 과시하다

- a 与之論大人, 則以為間己; 與之論細人, 則以為賣重。 『韓非子·說難』²³⁾
- b 宋因賣楚重以求講于齊, 齊不聽。 『戰國策·宋衛策』²⁴⁾

23) 군주와 그의 대신에 관해서 담론하면 자기를 이간질시킨다고 여기며, 지위가 낮은 인물에 관해서 담론하면 권세를 부린다고 생각한다.

24) 송나라는 초나라의 관심을 받는 것을 과시하려고 제나라와 화합을 시도했지만 제나라가 동의하지 않았다. (宋國則炫耀自己受楚國的重視, 要求與齊國講和, 齊國不同意。)

(9a)에서 '賣'은 '팔다'의 뜻이고 'yù'라고 하였다. (9b)의 『설문해자』에 따르면 '賣'은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팔다(銜)'의 뜻이고, '貝'와 '畜'을 따르며, '팔다, 과시하다'의 의미가 있다. (10)의 '賣'은 '빚내다, 과시하다(賣弄, 炫耀)'의 뜻이다. (10a)의 '賣重'은 권세를 부린다는 뜻이고, (10b)의 '宋因賣楚重'은 송나라가 초나라의 관심을 받는 것을 과시한다는 뜻이다.

『史記·老子韓非列傳』에서는 한비자의 『說難』을 인용하면서, (10)의 '賣重'을 '粥(鬻)杖'으로 바꾸었다. 司馬貞은 "賣(yù)我之杖"이라고 해석하였고, 張守節는 "粥, 音育。"이라고 하였다.²⁵⁾

- (11) a 呂不韋者，陽翟大賈人也。往來賤賤賣貴，家累千金。
 『史記·呂不韋列傳』
 b 孝景時，上郡以西旱，亦復修賣爵令，賤其價以招民。
 『史記·平淮書』

萍庵(2011)에 따르면 (11)의 '賣貴'와 '賣爵'의 '賣'은 모두 '賣yù'으로, 중간 부분의 '𠄎'을 '四'로 고쳐야 할 것이다.²⁶⁾

<표21> “賣(mài)”, 賣(yù) 사전에서의 수록

工具書	“賣(mài)”	賣(yù)
(1) 『說文解字』(漢)	【出部】出貨物也	【貝部】銜(炫)也, 音yù
(2) 『廣雅·釋古三上』(三國)	-----	賣만 수록
(3) 『玉篇』(南朝)	-----	【貝部】賣만 수록
(4) 『經籍纂詁』(清) ²⁷⁾	去聲: 卦韻	入聲: 屋韻 先秦兩漢 때 '賣yù'을 많이 사용
(5) 『康熙字典』(清)	【貝部】 필획 순서에 따라 쉽게 구분하고 비교할 수 있음 (按筆畫排在一起)	

25) 이렇게 바꾼 것은 '賣'은 '古字'로 쓰이고, '粥', '鬻'은 '今字'로 쓰였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司馬貞은 당나라 사학가이고, 張守節도 당나라 학자인데 『史記』에 주를 달았었다(『史記正義』).

26) 萍庵 「何謂"賣重"」, 『中華讀書報』, 2011年 9月 27日 15版.

『經籍纂詁』에서 보면 '先秦兩漢' 때에는 '賣yù'를 많이 사용하였다고 한다.

- (12) a 陰不佞溫人南侵，拐角得玉者，取其玉。將賣之，則為石。
『左傳·昭公二十四年』(春秋末期)
- b 楚人有賣其珠于鄭者，……鄭人買其櫝而還其珠。此可謂善賣櫝矣，未可謂善鬻珠也。²⁸⁾ 『韓非子·外儲說左上』(戰國末期)
- c 齊先鬻勺(趙)以取秦，後賣秦以取勺(趙)而功(攻)宋，今有(又)鬻天下以取秦。
馬王堆漢墓帛書『戰國縱橫家書』『字源』(550頁)

(12a)는 두 가지로 유추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賣'가 아니고 '買'자일 것이다. 두 번째는 '賣'의 발음이 'yù'인 통가자(通假字)일 것이고 본자는 '賣'이며 통가자는 '賣'일 것이다.²⁹⁾ '買'와 '賣'의 분화는 진한 시기로 추정되고 '賣'은 '팔다'의 뜻이 있기 때문이다. (12b)의 '賣'자가 발음이 'yù'인 통가자일 것으로 유추할 수 있는데, 이 예문의 시기는 전국 말기이기 때문이다. '鬻珠'와 같이 '鬻'도 같이 사용하였다.³⁰⁾ (12b)의 '賣', (12c)의 '賣' 등이 '鬻'과 같은 문장에서 쓰이는 것은 이형동의어로서의 글자 분화를 제시해준다.

- (13) 盛修第舍，賣弄威福。『後漢書 楊震傳』

(13)에서의 '賣弄'은 '뽐내다, 과시하다'의 뜻인데 '賣mài'의 본의에서 인신

27) 『經籍纂詁』는中國唯一一部大型的彙輯古書中的文字訓釋編排而成的訓詁詞典，所輯錄的文字訓釋都是唐以前的經傳子史和訓詁書、字書、韻書、音義書中所有的注釋。採用古書達100多種，收字13349字。經：儒家經典。籍：儒家經典以外的典籍。纂：收集整理。詁：古人對古書的注解。

28) 초나라 상인이 정나라 사람에게 진주를 팔았다. 정나라 사람은 상자를 사고 진주는 오히려 상인에게 돌려주었다. 이는 상자를 잘 파는 것이지 진주를 잘 판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楚國有一個商人把他的珍珠賣給鄭國的人。鄭國的人買了這個盒子卻把珠寶還給了商人。這可以說是善於賣盒子了，卻不能說善於賣珍珠。)

29) 일반적으로는 '本有其字'의 가차(假借)를 통가(通假)라 한다.

30) '鬻賣', '銜鬻'으로 연용(連用) 가능성도 있다.

된 것이 아니라 '賣yù'에서 인신된 것이고, 두 자형이 비슷하여 구분이 어렵게 되어 결국에는 명확한 이음질 단어 '賣弄'을 사용하게 된 것이다.

4. '賣'과 '價', '鬻', '粥'의 비교 분석

1) '賣'과 '價'의 비교 분석

段玉裁는 『설문해자』【貝】부의 '賣yù'을 설명할 때 『玉篇』에서의 "或作粥、鬻。是賣鬻為古今字矣."를 인용하였다.

<표22> '價'의 의미 분류

價(『漢語大字典』273頁) ³¹⁾	
팔다	사다
[說文·人部] 價, 賣也。	[玉篇·人部] 價, 買也。
段玉裁注: 價,[貝部]賣'下曰: '銜也'銜者行且賣也。	清·桂馥[說文解字義證·人部]: 價, 此如'酤'字賣買亦無定訓也。
'賣'는 '賣mài'가 아니고 '賣yù'이어야 한다.	'酤'자와 같이 '팔다', '사다'의 뜻이 있다. '酤'는 '술을 팔다', '술을 사다' 두 가지 의미가 있다.

'古字'는 '賣', '價'이고, '今字'는 '鬻', '粥'이다. '價'은 뜻을 나타내는 '亻'부와 소리를 나타내는 '賣yù'이 결합하여 이루어졌다. '賣'는 【貝】부에 속하고 '價'는 『설문해자』에서 【人】부에 속한다, '人', '賣'(육)을 따르고 '팔다', '사다'의 뜻이 있다. 『설문해자』에서 이르기를 '賣'은 경전에서 보이지 않고, 『周禮』에서는 '價'으로 쓰인다고 하였다.

(14) 팔다

31) '價'는 '覲dì'(보다, 만나다, 알현하다)와 같다. 『說文系傳·人部』: "價, 見也。"(五代·徐鉉)。段玉裁注: "價, 訓見, 卽今之覲字也。" 按: 經傳今皆作覲, 覲行而價廢矣。

- a 飾行儂慝。『周禮·地官·胥師』(先秦) (儂: 賣 慝: 邪惡、邪念)
- b 凡天患, 禁貴儂者, 使有恒賈。 『周禮·地官司徒·賈師』

(15) 사다

以量度成賈而征儂, 以質劑結信而止訟。 『周禮·地官·司市』
(征: 召也, 儂: 買也。物有定價, 則買者來也。)

(14a)는 보기 좋게 포장한 품질이 안 좋은 물건을 파는 것으로, '儂'은 '팔다'의 뜻이다. (15)의 '征儂'은 '고객을 끌다'의 뜻으로, '儂'은 '사다'의 뜻이다.

(16) a [賣]

段注: 賣即『周禮』之儂字, 今之鬻字。

b [儂]

徐鍇: 『周禮』借爲貨賣字, 音育, 融六反。『設文系傳』(宋)³²⁾

(16)에서 보다시피 『周禮』의 '儂'은 '賣'이다. '儂'은 『周禮』에서 "借爲貨賣字"라고 하여 '팔다'의 의미로 쓰인 것을 알 수 있다.³³⁾

<표23> '賣'와 '儂'의 관계

王筠	『說文解字句讀』(1988)	- '賣'은 經典에서는 '儂', '鬻', '粥'를 사용한다. - '儂'은 '賣'의 叢增字라고 하였다.
姚孝遂	「『昏鼎』銘文研究」(1962)	- '賣'은 古代典籍에서 '儂', '鬻', '粥'으로 쓰인다. - '賣'은 '儂'의 初文이다.
'賣', '儂'을 같은 한자로 본다.(王、姚二氏均以賣、儂爲一字) ³⁴⁾		

32) '貨'는 '팔다'와 '사다' 두 가지 의미가 있다. ① 賣義: 『玉篇』"賣金玉爲貨" '팔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連用(連用)할 수 있다. 如: 貨賣、貨鬻 ② 買義: 請自今所貨, 歲約卅過二百万。『宋史·食貨志』 (지금까지 산 것이 매년 이백만이 넘지 말아야 한다)

33) 黃凡, 「說"賣"和"儂"」, 『四川職業技術學院學報』, 第20卷 第1期, 2010, 61쪽.
段玉裁, 徐鍇 모두 '儂'을 '賣'의 가차자로 보고 있다. 徐鍇(920~974): 南唐文字訓詁學家. 平生著述甚多, 今僅存『說文解字系傳』40卷, 『說文解字韻譜』10卷.

34) 黃凡(2010:61-62) 참조함.

(17) 사다

杭有賣果者，善藏柑……置於市，賈十倍，人爭鬻之。

『劉基·賣柑者言』(元末明初)³⁷⁾

(18) 팔다

a 以其所有，易其所無，市賤鬻貴。『國語·齊語』(西周)

b 雍子自知其罪，而賂以買直；鮒也鬻獄；刑侯專殺，其罪一也。

『左傳·昭公十四年』(春秋)

c 馬死，則使其買粥之。

『周禮·司馬·巫馬』(先秦)

(17)의 '人爭鬻之'는 사람들이 다투어 산다는 뜻이다. (18a)에서 '市賤鬻貴'는 헐값에 사고 비싸게 판다는 뜻인데 '市'는 '사다'의 뜻이고 '鬻'은 '팔다'의 뜻이다.³⁸⁾ (18b)의 '鬻獄'은 소송을 빌미로 뇌물을 받는다는 뜻으로, '鬻'은 '사용하다'는 뜻이다. (18c)의 '買粥'은 '二字連通'의 형식으로서 '매매'의 뜻이다.

(19) 팔다, 과시하다

a 民力固窮，鬻賣兒子。『三國志·吳志·陸凱傳』(西晉)

b 四方之士多上書言得失，自銜鬻者以千數。

『漢書·東方朔傳』(東漢)

(19a)에서 '鬻賣'는 '(아이를) 팔다'는 뜻으로 이해하지만, (19b)는 '銜鬻'은 '과시하다, 뽐내다'의 뜻이다. '鬻'은 '팔다'의 뜻으로 많이 쓰이는데, '鬻爵'은 '작위를 팔다', '鬻文'은 '글을 팔다'의 뜻이다. '鬻寵'은 총애, 권력을 과시하는 것인데 인신의미로 사용되었다. 이는 '賣'에서 인신한 '賣弄'의 의미와 같은 것이다.

37) 武彬, 「"買, 賣"攷義」, 『語言文字研究』, 第15卷 第3期, 1999, 67쪽.

38) 市: 본의는 장사하는 장소를 나타내는데 후에는 '買'와 '賣' 두 가지 의미를 모두 나타낼 수 있었다. 『說文』賈: 凡買賣皆曰市. 『爾雅·釋言』: 賈, 市出. 疏: 謂市, 買賣物也. '賈', '市'는 '買'와 '賣'의 뜻을 가지고 있어서 '買賣'(장사)의 의미를 나타낸다.

5. 맺음말

'网'은 상형자이고 갑골문에서 보면 그물 모양이다. '網'과 '罔'은 모두 '网'의 이체자이다. '网'의 후기자는 '網'으로서 '糸'를 따르고 '罔'성이다. 갑골문에서 '𦉳', 금문에서 '𦉴', 籀文에서 '罔', 지금의 '罔'으로의 변화는 '豎向並連'과 관련이 있다. 현재 '網'이 '网'으로 간화한 것은 복고(復古)라고 할 수 있다. '网'은 음을 나타내는 편방으로 사용될 때는 '岡'과 같이 '山'을 제외한 윗부분 '冫, 冫'을 쓰고, 뜻을 나타내는 편방으로 쓸 때는 '冫', '冫' 등과 같이 '冫'으로 간화되었다. '貝'는 상형자이고 갑골문의 '貝'는 입을 벌리고 있는 바다 조개의 모습을 본뜨고 있다. '貝'가 소전 '貝'로의 변화는 '橫向並連'과 관련이 있다. 고대에 조개껍데기를 화폐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貝'는 금전이나 재물을 상징한다.

'買'는 회의자이고, 갑골문의 '買'는 그물을 드리워 바다 조개를 잡는 모습을 본뜨고 있다. 그물에 조개를 담고 가서 물건을 사는 데에서 물건을 사는 뜻을 나타내게 되었다. 고대에 바다 조개는 사람마다 필요로 하고 또한 그것으로 물품을 매매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바다 조개는 대부분 상업적인 교역에 주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買'는 '돈, 재산, 이익을 끌어 모이다'는 뜻으로 이해한다. '買'는 상품교역을 뜻하기 때문에 고대에는 '사다'와 '팔다' 두 가지 뜻이 있었지만, 후에 '사다'의 뜻만 나타내게 되었다. '隸變'후에 해서체로 '買', 간화자에서는 초서체로 줄인 '𠄎'를 사용한다.

'賣'는 회의 겸 형성자이고, '出'과 '買'로 구성되어 원래 자형은 '賣'이다. '出'자는 갑골문에서 '出'으로 나타나는데 '止(지)'와 '凵'의 합자이다. 원래는 '出'이 의미부이고 '買'가 소리부로 사들인(買) 것을 내다(出) 파는 것을 뜻하는데 '出'이 '士'로 와변되었다. 이로부터 '팔아먹다, 자신을 드러내다, 과시하다'로 인식되었다. 간화자에서는 초서체로 줄여 '賣'로 쓴다. '買'자에 '增意符'인 '出'자를 부가하여 형성된 '賣'는 '孳乳分化'에 속한다. 선진고서에서 '賣'자를 볼 수 있다. 그러나 고고학 자료를 보면 '賣'가 가장 일찍 나타난 것은 서한 초

기 필사본인 '馬王堆漢墓帛書'('戰國縱橫家書')의 '賣'이다. 따라서 '賣'가 나타나기 전, 선진 이전의 문헌에서 나오는 '買'의 '팔다' 또는 '사다' 의미는 구체적인 문맥에서 파악해야 한다. '買', '賣'의 뜻을 나타내는 한자가 많은데 '古字'는 '賣', '價'이고, '今字'는 '鬻', '粥'이다.

'賣yù'은 『설문해자』에서 【貝】 부에 속한다. 『설문해자』에서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팔다(銜)'라고 하고 '貝'와 '畜'을 따른다고 하였으며 '팔다'와 '과시하다'의 의미가 있다고 하였다. '賣yù'자가 예변 후에 '賣mài'와 '义同形近'하여 혼동하기 쉬웠기 때문에 '賣'를 사용하였다. '賣mài'는 『설문해자』에서 【出】 부에 속한다. '出'과 '賣yù'의 '貝'를 비교해 보면 중간 부분의 '𠃉'(網의 변형)과 '四'('目'의 변형)의 차이가 있다. '目'과 '囧'은 같은 상형자 '𠃉'(눈)에서 기원하여 두 갈래로 변형하였다. 『字源』에서 말하는 빛의 뜻을 나타낸다는 '囧'(빛날 경)은 원시적인 창문을 본뜬 한자이다.

『経籍纂诂』에 따르면 '先秦两汉' 시대에는 '賣yù'을 많이 사용하였다. '賣弄'은 '뵈내다, 과시하다'의 뜻을 나타내는데 '賣'의 본의에서 인신된 것이 아니라 '賣yù'에서 인신된 것이고 두 자형이 비슷하여 이음절인 '賣弄'으로 구분하게 된 것이다.

'價'은 『설문해자』에서 【人】 부에 속하고, '人', '賣'를 따른다. '價'은 '鬻(육)과 동자(同字)인데, 『周禮』의 '價'은 '賣'이다. 『설문해자』에서 이르기를 '賣'은 경전에서 보이지 않고, 『周禮』에서는 '價'으로 쓰이고 '팔다'와 '사다' 두 가지 뜻이 있다. '價'의 '사다' 의미는 『周禮』에서만 나타난다.

'鬻yù'은 '鬻', '米'를 따르고 '사다', '팔다' 두 가지 뜻이 있었다. '鬻zhōu'일 때는 죽(米粥)을 나타내는데, '鬻'은 인신의미로 많이 쓰였기 때문에 간화자인 '粥'으로 본의인 '죽'을 나타냈다. 따라서 '鬻'은 '粥'의 본자이다. '鬻', '粥'은 '賣'과 음이 비슷한 '音近通假'이다.

'賣'은 경전에서 '本字形'으로 쓰지 않고 '價', '鬻', '粥'으로 차용해 썼다. '價'은 '賣'의 '篆增字'이고 '팔다'의 뜻으로 많이 쓰인다. '賣'은 '價'보다 일찍 나타났고 모두 '사다', '팔다'의 뜻이 있었다.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사람들은 '買',

‘賣’류 단어들을 혼동하여 구별이 필요해졌다. 이미 존재하던 ‘買’가 단독으로 ‘사다’의 의미를 나타내게 되고, ‘팔다’의 뜻은 ‘賣’, ‘價’으로 표현하였다. ‘賣’, ‘價’은 후세에 잘 나타나지 않고 대신 ‘买’, ‘卖’, ‘鬻’, ‘粥’을 사용한다.

參考文獻

- 손예철, 『중국문자학』, 아카넷, 2003.
- 양동숙, 『중국문자학』, 차이나하우스, 2006.
- 하영삼, 『한자어원사전』, 도서출판3, 2014.
- 傅東華著, 『字源』, 藝文印書館股份有限公司, 1985.
- 葉桂柳, 「“买”, “市”, “购”的历时演变」, 『古汉语研究』, 第4期, 2011.
- 唐蘭 著, 오만중·김미성·박정희 옮김, 『중국문자학』, 전남대학교출판부, 2017.
- 徐中舒主編, 『漢語大字典』, 四川辭書出版社, 1986-1990年出版.
- 徐無聞, 『甲金篆隸大字典』, 四川辭書出版社, 2008.
- 武彬, 「“買, 賣”摭義」, 『語言文字研究』, 第15卷 第3期, 1999.
- 王鳳陽, 『漢字學』, 吉林大學出版社, 1989.
- 王寧 著, 洪映熙 옮김, 『漢字構型學講座(한자구형학강좌)』, 제이앤씨, 2011.
- 竇文字·竇勇, 『漢字字源: 當代新說文解字』, 吉林文史出版社, 2005.
- 萍庵, 「何謂“賣重”?」, 『中華讀書報』, 第15版, 2011.
- 裘錫圭 著, 李鴻鎮 옮김, 『文字學概要(중국문자학의 이해)』, 신아사, 2010.
- 許慎著, 段玉裁注, 『說文解字注』, 海古籍出版社, 1988.
- 許慎著, 湯可敬撰, 『說文解字今釋』, 嶽麓書社, 1997.
- 許進雄 著, 趙容俊 옮김, 『中國文字學講議(중국문자학강의)』, 고려대학교출판문화원, 2013.
- 穀衍奎, 『漢字源流字典』, 語文出版社, 2008.
- 黃凡, 「說“賣”和“價”」, 『四川職業技術學院學報』, 第20卷 第1期, 2010.

Abstract

A Brief Review of Chinese character

'買' and '賣'

Chae, Chun Ok

There are some Chinese Character '買' and '賣'. Except detailed context, they are difficult to assort because they have both historically mean 'buy' and 'sell'. In this paper, we study the features and functional attributes of two Chinese Characters '買' and '賣', and discuss the relation with '賣yù', '價', '鬻', and '粥'.

'買' means commodity trading. In ancient times, there were two meanings of 'buy' and 'sell' in '買', and only the meaning of 'buy' was expressed later. Its character changed to '買' as 'text hand' after '隸變'(ornamental "seal" characters), and also changed to '买' as cursive characters in Simplified Chinese characters.

'賣mài' belongs to associative compounds and phonetic compounds, and was '賣' because it is composed of '出' and '買'. Before '賣' turned up, the character '買' which comes from the literature that is before the front age of Chin dynasty has two meanings of 'buy' and 'sell'.

'賣 yù' belongs to the 【貝部】, and in the 『说文』 it means 'walking around the street and selling goods'. The character follows '貝' and '畚', and means 'show off'. It was difficult to distinguish '賣yù' from '賣mài' after '隸變'. Comparing the '賣mài' which belongs to 【出部】 with '賣yù' which belongs to 【貝部】, there is a difference at '𠃉'(variation of '网) and '四(四:Kyung)'(variation of '目').

'價' belongs to the 【人】 part in 『说文』. In 『周礼』, it is used as "價" and it has two meanings: "buy" and "sell". '鬻' follows '鬻', '米', and is also called 'yù'. It has two meanings of 'buy' and 'sell'. '鬻' is the original character of '粥', and is phonetic loan character which is close to '賣' in sound.

Key words : buying, sale, graphonomy, phonetic loan character, Glyphe

투 고 일 : 2020. 10. 10. / 심 사 일 : 2020. 10. 15.~ 2020. 11. 15. / 게재확정일 : 2020. 11. 20.

